

## 초대의 글



한얼연구소 이사장  
**박준환** 배상

지구촌에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입니다. 하지만 잠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태양의 아우라인 코로나가 없으면 지구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노력은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기력과 전자력을 이용하여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얼 학술대회가 랜선으로 서울과 LA 동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로 계획되었던 제 23차 한얼학회를 한국에서 재개하게 되어 연구소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행사가 무사히 치루어지도록 한국에서 도움을 주신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 이순선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회장, 김창주 선생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논문을 기고해주시고 기꺼이 강연에 임해주신 손성태, 정건재 교수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인류의 생활양태가 달라지리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넓혀진 한얼연구소 활동이 앞으로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넘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까지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유라시아를 끌어안고 알타이 어족 후손들과 동류의식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대조선의 한얼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 - 2024년은 흥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5,000 여년 면면히 이어온 대한조선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공통의 혈통, 언어, 문화를 지닌 전세계 8,300만 동포들에게 한얼역사관이 펼쳐지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얼연구소 이사장 박준환 Ph.D 拜上

(South Baylo University, California University of Management & Sciences 설립자, 이사장)



**한얼 연구소** 흥익, 상생, 자존의 한얼 펴기